



김제시, 성실납세 법인·개인에게 표창장 수여

김제시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며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6명(개인 4명, 법인 2개소)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성실납세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공납세자 선발조건은 지방세를 최근 5년간 매년 3건 이상 납기내 납부한 자 중 체납액이 없고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은 2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2021년 이후 김제시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와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제외한다.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법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 김제시터부어비스 무료 이용 등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금·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 혜택을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아영면 지사협, 초등 신입생 입학용품 지원

남원시 아영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는 3일, 아영초 신입생 5명에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응원과 소정의 입학선물을 전달했다. 지사협(위원장 이영주)은 저출산·고령화로 아영초등학교 입학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지역사회의 꾸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판단, 3년째 초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안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편 올해 지사협 추진 특화사업으로는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용품 지원 사업 △어르신 생신축하사업 △밀반찬 지원사업 △난방취약계층 지원사업 △태양광 가로등 설치 지원사업 △실내 안전바 설치 지원사업이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소방서,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당부

남원소방서가 봄철 해빙기의 지반 약화로 인한 낙석,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강조했다. 주요 안전 수칙으로는 첫째, 주변 시설물 점검이다. 이상 징후를 발견 경우 즉시 119나 관할 지자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둘째, 건설 공사장 주변 접근 주의다. 셋째, 안전한 산행 및 야외활동이다. 넷째, 해빙기 수난사고 주의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강이나 호수의 얼음이 결빙기와 달리 얇아져 있을 수 있으므로, 얼음낚시나 썰매 타기 등 빙상 위의 여가 활동은 절대 삼가야 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덕과면 동해골서 울려 퍼진 "대한독립만세"

제107주년 3·1절 맞아... 기념식·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 성황리 개최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덕과면 사율리 동해골 3·1절 기념탑 광장에서는 남원시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 덕과면 발전협의회(회장 이종대) 주관으로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1부 기념식에서는 최기식 남원시 광복회장의 독립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최경식 남원시장의 기념사, 박희승 국회의원 추념사,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의 추념사, 3·1절 노래 제창, 이종대 발전협의회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바쳐 독립을 이루고자 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3·1절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기억하겠다"며 "뜻깊은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2부에서는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진행됐다. 주민 100여 명이 당시 복장과 상황을 재현하며 긴박했던 역사적 현장을 생생하게 되살렸고, 참가자들은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외치며 선열들의 독립의지를 되새겼다. 덕과면 동해골에서 매년 개최되는 이 재현행사는 1919년 4월 3일 덕과면에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을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강진면 지사협, 어르신께 사랑의 팔죽나눔 행사

임실군 강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영숙, 강준희)는 3일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온(溫)동네, 팔죽한그릇, 마음한그릇' 팔죽나눔행사를 개최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강진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막바지 추위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체 위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직접 팔을 삶고 재료를 손질하며 정성껏 팔죽을 준비했으며 관내 25개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특히, 이번 나눔은 단소환 음식전달을 넘어, 어르신들의 안부를 나누고 건강상태를 살피는 등 촘촘한 복지안전망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한 어르신은 "직접 만든 팔죽을 나눠 주니 마음까지 따뜻해진다"며 "이렇게 찾아와 안부를 물어봐주니 큰 힘이 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강준희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 건강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이웃돌봄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임실=전충영 기자

전북소방, 신입 소방공무원 36명에 임명장 수여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신입 소방공무원 36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새내기 소방관들의 힘찬 출발을 응원했다. 이날 임명식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신입 소방공무원들에게 각오를 다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직자로서의 책임감과 소명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임용된 신입 소방공무원은 광주소방학교 제104기 및 제105기 교육과정을 수료한 교육생으로, △화재진압 전술과 구조기법 △재난현장 대응절차 △소방행정 실무 등 현장 중심의 교육과 실습을 이수했다. 특히 소화재 훈련과 고강도 구조 실습을 통해 실제 재난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적응력과 팀 단위 협업 역량을 갖췄다. 신입 소방공무원들은 도내 각 소방관서에 배치되어 화재 대응과 인명구조, 각종 재난 현장 활동 등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만호 기자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소방은 위기의 순간 도민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존재"라며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동료와의 팀워크를 바탕으로 침착하고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민의 신뢰는 기본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쌓인다"며 초임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만경읍, 기초수급자 가구 현장 중심 적극행정 추진

김제시 만경읍 행정복지센터가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만경읍은 지난 2월부터 오는 5월까지 관내 취약계층 233세대 288명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복지상담 강화'를 위한 '일제방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비대면 상담 위주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찾아 생활실태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위기징후 조기 발굴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현장 방문에서는 주거환경과 건강 상태, 돌봄 상황 등 전반적인 생활여건을 점검하는 동시에 복지 욕구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다. 상담 과정에서 긴급복지 지원, 통합사례관리, 민간지원 연계는 물론 건강·주거·돌봄 서비스까지 필요한 지원을 즉시 연계하며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량면 복지기동대, 어르신 안전손잡이 설치 봉사

김제시 부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7일 복지기동대(대장 김상철)가 저소득 거동 불편 어르신 가구를 대상으로 변기용 보조손잡이 설치 및 주거 환경 정비 활동을 펼쳐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평소 무릎 관절염과 노화로 화장실 이용 시 낙상 위험이 컸던 홀몸 어르신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부량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의 사례관리를 통해 추진됐다. 이날 복지기동대원들은 어르신이 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기 양옆에 튼튼한 보조손잡이를 직접 설치하고, 전등 교체와 집 안팎의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9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